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심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였다.

1. 예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경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기는 일들 행한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과 그의 뜻과 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 부모에 대한 불순종, 이웃에 대한 정당치 않은 미움, 살인, 음란함,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욕 등의 죄를 가리킨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죄의 경향이 더 쌓인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들 속에는 죄성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었다. 그는 죄의 경향이 없으셨다. 그는 무죄하셨다. 그는 의인이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의인이시다. 히브리서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공생애의 시작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셨다. 그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고 그것을 이기셨고 성경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2.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이사야 53:5-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यो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들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과 형벌을 메시아께서 대신 당하셨다.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속죄의 이치이다.

마태복음 20:28, “인자(人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의 죽음이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셨다면 그 자신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그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는 의인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속죄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셨다.

3.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하였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神性)을 가진 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가 되었고 그의 속죄사역 때문에 그를 믿는 많은 사람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대리적 속죄의 이치이다.

로마서 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요점이며 복음 안에서 주신 구원의 복이다.

고린도전서 1: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救贖)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으로 간주되었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를 사랑하고 힘써 순종하기를 결심하자.